

가부장제의 현대적 변용과 가족위기

함 인 회*

- I. 가족 경험의 다양성
- II. 가부장제에 대한 평가
- III. 가부장제의 현대적 변용
- V. 가족 변화의 양향성(兩向性)
- VI. 결론

I. 가족 경험의 다양성

가족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가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고백이라기 보다는 가족이라는 우리의 현실이 생각만큼 간단하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고백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가족이 무엇인지 정의해보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마도 10인 10색의 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가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을 ‘친밀한 환경’ *intimate environment*으로 경험하기도 있고, ‘세파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haven in the heartless world*로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가족은 ‘성원들간의 갈등과 증오로부터 정신질환

을 야기하는 미친 제도 *mad institution*로 비추이기도 하고, ‘고통의 세계’ *worlds of pain*로 경험되기도 한다.

가족 경험은 한 가족을 구성하는 성원들의 성과 세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여성사회학자 J. Bernard는 아내가 경험하는 결혼과 가족, 남편이 경험하는 결혼과 가족이 별개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편의 결혼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 결혼관 등이 부인의 그것과 서로 별개의 것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 덧붙여 세대간의 갈등이 가족 경험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요한 축이 되고 있다. 한가지 변화가 있다면 과거에는 노부모와 그들 자녀 세대의 갈등이 가족 삶의 역동성을 이루었다면 오늘날은 부모와 미혼의 자녀가 심각한 세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가족 경험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성원들간의 갈등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기본적인 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출산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이 중시되던 전통농경사회의 가족과,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 및 가족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강사

성원들간의 만족이 증시되는 현대산업사회의 가족이 개별 성원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다를 것이다.

같은 사회 안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계층)나 지역사회적 특성, 가족 형태 등에 따라 가족 경험에 차이가 나타난다. 가족의 수입이 어느정도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가, 가장이 출퇴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영업자인가, 부부의 교육정도가 어느정도인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가, 주택양식이 아파트인가 단독주택인가, 대도시에 거주하는가 농촌에 거주하는가 등에 따라 다양한 가족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 경험의 공통점을 찾는 작업 자체가 무의미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단독가구의 증가, 편부모 가족의 증가, 이혼 및 재혼가족의 증가, 직업이동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별거가족의 등장, 나아가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부부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등의 증가는 우리 가족 경험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가족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신화란 현실과는 무관한 왜곡된 현실 인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름지기 가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의미한다. 기혼여성들의 취업율이 46%를 웃도는 현재에도 ‘남편은 밖에 나가 돈 벌어 오고 부인은 집 안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가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은 일종의 신화이다.

가족과 관련된 신화는 경험적 연구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주부들 대다수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비교적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부간에 실제로 대

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애적인 부부중심 가족으로 부부간에 비교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한다. 즉 바람직한 가족 이미지가 철저하게 내면화됨으로써 자신의 가족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상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는 가족 성원들의 이중의식 속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남편들은 대체로 아내가 생활력도 강하고 독립적이며 동시에 온순하고 순종적이기를 기대한다. 아내 역시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상으로 생각하면서도 남편의 일차적 역할은 가족 부양이라는 기대하에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둔다.

세대간의 이중의식도 과거에 비해 훨씬 미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소위 신세대라 불리는 자녀 세대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하기를 갈망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로 치부한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모를 ‘무능력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부모들도 자식의 성공과 출세를 담보삼아 지나친 교육열을 합리화하고, 호화혼수 허례허식으로 인한 폐해를 ‘일생에 단 한번 뿐이라는’ 구실로 정당화한다.

노부모와 기혼자녀 세대간의 갈등 역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오늘날 고부간의 갈등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아들의 의무감과 현실적으로 부모를 모시기 어려운 며느리의 상황으로 인해, 과거 부모부양이 의무이던 시절보다 더욱 미묘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경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가족 현실에 직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중심부에는 과

거 전통가족의 구심점이었던 가부장권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 같다. 그 우려는 때로 ‘옛날이 좋았다, 전통가족으로 돌아가자’는 보수회귀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서는 가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가장의 권위를 새롭게 회복하자’는 신보수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변화하는 가족상황에 걸맞게 평등한 가족관계와 민주적 가족가치관의 정립을 토대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립하려는 노력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대 가족의 변화와 그로 인한 성원들의 위기의식 내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 가부장제의 역할 및 행위 규범이 오늘날의 가족제도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현대적 가부장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볼 것이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사회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실상과 그 원인을 부분적으로나마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가족의 변화 방향을 찾아내어 가족 성원들이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다.

II. 가부장제에 대한 평가¹⁾

1. 전통적 가부장에 대한 평가

전통적 가부장의 모습에 대해 현대의 가부장들

이 스스로 평가하여 해석하는 내용은 가부장의 역할과 가부장적 행동양식에 대한 견해로 나뉘어진다. 즉 “전통적인 가장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며, 가정내에서 가사에 관계되는 일에 관하여 가족들의 의사 및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외부에 대하여 가족을 대표 의사를 전달하고 자기가 소속한 가족의 문화를 전승·발전시킬 의무감을 가지고, 다른 가족·사회와의 접촉 이입 역할 등을 한다(54세 대기업 간부)”고 봄으로써 가부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부장상을 정립하고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가부장은 과묵하고 사려 깊고 근엄했으며, 충효·자애·전통 그리고 대의와 명예를 중히 여기며, 가족의 안위와 양육을 책임 지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명실공히 문패에 합당한 행실을 다했다(52세 고등학교 교사)”는 점에서 가부장의 행동규범을 통해 가부장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가부장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이끌어나가는 자로서 근면·성실·예의로서 항상 모범이 되어야하나... 때로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45세 회사원)”고 보아 역할과 행위양식을 동시에 포함해서 이해하는 견해도 공존하고 있다.

현대의 가부장이 전통적으로 가부장의 역할로 규정한 것을 보면;

- 1)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

1) 가부장제에 대한 평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중산층 가장 130명이 자유기술식 설문 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때 사용된 설문문항은 ① 귀하가 생각하시는 전통적 가부장의 모습 은 어떠한 것인지 귀하의 진솔한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② 귀하가 생각하시는 오늘날 가부장의 모습 은 어떠한 것인지 귀하의 진솔한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다. 즉 남성 가부장 자신들의 기술을 통하여 가부장제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경험에 나타나는 가부장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가족의 기둥”이요 “중심”이요 “정신적 지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역할
- 3)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효와 우애를 혼용하며”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역할
- 4) “집안의 대사를 관장”하고 “가족을 지휘 감독 통솔”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족 리더”로서의 역할
- 5) “조상숭배의 전통”과 “가풍을 계승”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부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고” “항상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며” “자식의 아버지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남성이라는 인간적인 면보다 우선했다 (48세 교수)”는 평가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바, 전통적 가부장의 어깨 위에 드리워진 책임의 막중함과 부담을 부정

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집안어른”으로서의 가부장의 역할은 일면 “가족을 통솔하고 지휘·감독하는 구심점”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동시에 “남성중심적” “수직적 위계서열구조의 우두머리”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소왕국의 왕”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두번째, 전통적 가부장의 행위규범 내지 행동양식에 대한 평가는 앞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볼 때,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강하게 표출되는 동시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극히 부정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전통적 가부장의 행위양식에 대한 평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의미하는 ‘부정적’ ‘긍정적’ 평가란 상대적인 것으로 필자가 서술내용을 분석, 낱양스를 파악하여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1>은 가부장적 행위양식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양하며, 동시에 가부장이라는 지위에 부과된 권위를 행사하는 데 대해 상반된 평가가 공존함을 보여준다.

<표 1> 전통적 가부장의 행위양식에 대한 평가

평 가	평 가 내 용
부 정 적	권위적, 지배적, 독선적·독단적·일방적, 비합리적·편협함, 군림·명령·두려움의 대상, 보수적, 형식적·부자연스러움, 남존여비 사상, 절대적 복종 강요, 무조건적 희생 요구 등
중 립 적	근엄·위엄·엄격, 과묵, 통솔·지휘, 부자유친, 장유유서, 엄부자모, 품위유지
긍 정 적	책임감, 술선수범, 자제·인내·절제된 행동 및 사고, 부모공경·우애, 상부상조, 존경의 대상, 정신적 가치존중, 자상함, 외유내강, 판단력, 포용력, 대담함(남성다움), 도덕적·윤리적

위 표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가부장적 행위=권위적’이라는 등식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부장의 권위적 행동양식은 독선적이며 편협하고 강압적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근엄하고 위엄과 품위가 있는 모습으로 비추이기도 하며, 거꾸로 통솔력과 절제력·책임감 등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부장적 행위양식에 대한 상반된 평가 및 해석이 가부장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성별 세대별 갈등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2. 현대적 가(부)장에 대한 평가

현대적 가장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 가부장의 모습을 준거로 했을 때의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 함께 표현되고 있다.

이를테면, “오늘날의 가장은 옛날보다 권위가 많이 실추된 것 같아 못내 유감스럽다. 오늘날의 가장은 책임은 그대로이되 자상한 면이 요구되고 보다 낮은 위치에 있게 된 것 같다(47세 공무원)”. “오늘날은 가장이라 할지라도 가정내에서 그 행동이나 사고가 객관성이 있어야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은 용납되지 않는다. 능력이 없는 가장은 그의 의견마저도 묵살된다. 능력 가운데는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49세 중소기업 경영주)”. “오늘날의 가장은 가족 위에 군림하기보다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나 그 위상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실추되었다(55세 국민학교 교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관적인 호오(好惡)의 감정이 함께 표현되고 있다.

현대적 가장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 1) 부인의 역할 곧 가사 및 자녀양육의 권한과 구별되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
- 2) 의사결정시 “가족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의논해서 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 3) 가부장의 권위는 약화되었으나 “가족의 기동”으로서 “가족의 분위기를 조성” 하는 역할
- 4) 가사 및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자녀들의 친구와 같은 아버지로서의 역할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가장의 행위양식에 대한 평가는 앞서 살펴본 전통적 가부장제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바, “오늘날의 가장은 명령이나 독단보다는 행동과 대화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 한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계보다 가족들간의 상호교류와 인격적인 관계를 존중한다. 가족을 지배한다거나 이끌어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적 생활을 중시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의 모습인 것 같다(46세 가전제품 대리점 경영)”고 보는 긍정적 가정관에서부터, “... 여러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늘날 가장의 모습은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는 모습, 지나치게 서로가 이기적인 점(특히 가족단위), 실제로 보다 무엇이든 과장하고 있는 점, 특히 돈이나 명예를 따라 자기를 쉽게 파는 모습, 삶의 철학이 부족하고 참고 기다리며 사는 것을 모르고 사는 모습이 오늘날의 가장의 모습이 아닌가?(49세 방송인)” 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아래 <표 2>는 오늘날 가장의 행위양식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도 나타나듯이

(표 2) 현대적 가부장의 행위양식에 대한 평가

평 가	평 가 내 용
부 정 적	가족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배급사상, 출세주의, 경박함, 무력함, 자녀로부터 소외, 도덕성 및 전통적 예의범절 결여, 삶의 철학이나 여유가 없음, 인내심 부족, 책임감 회박
중 립 적	개인의 개성존중 개인주의, 객관적, 타협적, 핵가족 선호, 대화가 없다
긍 정 적	민주적, 평등, 온화·위엄감소, 자상함, 친목·화목 도모, 친근감, 사랑·애정 중시, 자율성 인정, 원만함

오늘날 가장에 대한 평가는 사회전반적인 변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일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산업화 및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가족이기주의 등에는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Ⅲ. 가부장제의 현대적 변용

이상 가부장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전통적 가부장’으로부터 ‘현대적인 가부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부장 자신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통적으로 가부장에게 부과되었던 역할과 오늘날 가장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생계유지 역할과 관련하여 명목적으로는 가부장의 책임비중이 감소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장의 ‘돈벌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가장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약하고 무

능력한 가장으로 비난을 받는다” “앞으로는 가족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장의 위치에 위치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로지 경제활동만 하는 사람이다” “가장은 오직 돈을 벌어드 주는 사람이다” 등의 평가에 이러한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2) 가족의 대표자로서의 권한 및 가부장의 권위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약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오늘날은 가장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으며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모 역할의 비중이 감소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멀리하게됨에 따라 가장의 위치는 실종되었다” “과거에 비해 가장의 권위가 많이 실추된 것 같아 못내 유감스럽다” “가족성원으로 부터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할만한 힘은 없다. 가장의 위치가 하락한 느낌이다” 등에서 이러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3) 가장의 자녀교육 역할 및 전통문화, 예의범절, 가풍 계승자로서의 역할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자녀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정신적 가정교육이 점차 결여되어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자녀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친근하고 ... 진정한 의미의 관심에 입각한 부모 자녀관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여성의 경제력을 인정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사 및 자녀양육에 참여하되, ‘가장다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오늘날의 가정은 모든 정보의 노출로 인해 별것 아닌 옆사람 정도로 보이기 쉽다. 따라서 가정의 역할도 자녀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등에서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 가족의 기둥 중심으로서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집안일의 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적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가정은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알면서도 고집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가족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족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생활을 유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평가에서 가부장적 지위 자체에 부과된 권위 *positional authority*는 점차 약화되어가는 반면에, 가부장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통솔력 등에 따른 영향력 *personal authority*은 오히려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족 안에서의 엄격한 성 역할분업구조 및 연령에 따른 서열구조가 부분적으로나마 역할공유 및 평등구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추측케한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오늘날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이 누리던 권한을 그리워하면서, 상실되어가는 가부장의 권위에 대해 순간순간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일면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전문직 50세)는 평가를 내리는데서

오늘날 가장들이 느끼고 있는 복합적 정서의 한 단면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날의 가정은 가족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여전히 가족의 기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된 권위주의라고 표현한 경우”(49세 공무원)도 있고, “부권은 약화되었으나 전통적 가부장적 요소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음”을 들어 오늘날의 가부장을 “과도기적”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전통적 가부장에서 현대적 가부장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정의 역할 및 행위규범에 내려진 평가는 대체로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 가부장을 부정적으로, 현대적 가부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유형이다. 이는 권위적 독단적 지배적이며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전통적 가부장으로부터, 가족 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위신과 체통에 따른 가족통솔보다는 자상하고 친근한 관심을 보이는 오늘날 가정의 모습을 더욱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전통적 가부장을 긍정적으로, 현대적 가부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유형이다. 이는 가정의 권위 및 지위가 실추되고 가정 안에서의 가장 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며, 동시에 존경받던 가정의 모습은 사라지고 가장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희박해지며, 정신적인 측면보다는 물질적 가치 및 가정의 개인적 능력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셋째, 가부장적 역할 및 행위양식의 변화를 그 자체로 수용하는 중립적 시각이다. 여기서는 가정의 역할 및 행위규범의 변화를 기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응양식으로 보아 변화된 모습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전통적 가부장은 효와 우애를 강조하고 근엄함과 위엄이 있는데다 전통적 예의범절과 도덕을 준수하고 가족을 책임감있게 통솔하였음에 비해, 오늘날의 가장은 성원들의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보다 민주적이며 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성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가부장적 역할 및 행위양식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공존하고 있는 시각이다. 즉 가부장의 권위나 위엄이 약화되고 대신 민주적이며 온화한 가장으로 변화해감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지나친 개인주의의 확대에 의해 가장에 대한 존경심이 낮아지고 과거 가족 성원들을 묶어 주던 정신적 가치, 예의범절, 도덕 윤리 등이 약화되고 물질만능주의·이기주의·출세주의 등이 강화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가장의 역할 및 행위양식과 관련해서 모든 가족성원들의 가치 합의하에 공유되고 있는 규범을 형성하는 작업이 극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 가부장권은 무너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은 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안정이 흔들리고 자녀교육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며” “가정불화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장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견해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IV. 가족 변화의 양향성(兩向性)

지금까지 살펴본 가부장제적 행위양식 및 규범에 대한 변화는 가족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양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곧 가족 변화와

사회 변화 간에는 적응과 저항의 양향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바, 가족은 사회변화에 비교적 유연하게 적응하는가 하면 전통적 가족양식을 고수하며 강력히 저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통적 가부장제의 약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가부장제의 장단점을 수용하는 가부장의 경우는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예로서, 거꾸로의 경우는 변화에 저항하는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변화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여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 사회의 변화 속도 및 변화방향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여 지체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사회가 가족의 변화를 미처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이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함은 물론이다.

다음에는 절을 바꾸어 가족이 사회변화에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문제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 현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종류와 그 원인을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해볼 것이다.

가족과 사회 변화간에 나타나는 적응과 저항의 양향성을 구체적인 가족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가족과 사회가 서로 적응해가는 양식을 살펴보면, 적응양식으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그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넓어지면서 기혼여성들의 취업 형태도 다양해지고 주부 자신들의 직업의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취업률 증가와 병행해서 기혼여성의 취업 형태와 사회계층적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유아교육시설의 개발과 확충에도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의 모색에 앞서 취업주부들의 이중역할 부담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사 및 자녀양육을 둘러싼 역할 분담 양식의 변화(‘자녀양육에 남성의 참여를 증대시키자’)와 여성의 직장활동도 ‘권리이자의무를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가 일고 있음도 적응양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주부들의 취업을 증가와 더불어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망되기 시작하였음은 흥미롭다. 실제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한다는데 대해서는 남편의 87%가 동의하나, 가사관행에 있어서는 ‘남편의 가사참여가 저조하다’든가 ‘가사 자동화로 오히려 여성의 가사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으로 미루어, 가사의 문제는 태도와 행동간에 상당한 괴리현상이 존재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셋째,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와 다양해진 주부들의 생활양식 역시 사회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적응해가는 양식으로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가족의 생활주기 변화로 인해 생겨난 주부들의 여유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넷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와 부부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는데서 사회변화에 걸맞는 가족변화의 한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위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민주적 평등사회를 지향해가는 사회변화 추세, 그리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해가는 사회풍조가 서로 맞물려 일어난 결과라 생각된다.

다섯째,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개발’과 ‘유료양로원 개설’이 제안되고 있음은 훌륭한 적응양식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이는 노인을 모시기 어려운 현실적 가족 상황과 부모에 대한 효의식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최선의 대안 가운데 하나라 생각된다.

끝으로, 가족법의 변화에서도 가족이 사회변화에 적응해가는 측면이 상당 부분 포착된다. 실제로 법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법 자체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사회변화에 소극적으로 적응해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법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2) 가족과 사회의 변화 속도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체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먼저 ‘사회변화에 가족이 미처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곧 ‘가족지체’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바, 하나는 가족이 사회변화에 저항함으로써 생긴 문제요, 다른 하나는 가족이 사회변화에 왜곡된 적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의 부적응을 강화시키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변화된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기존의 성 역할분업구조를 고수함으로써 파생되고 있다. 첫째, ‘취업주부들의 노동·육아·가사의 삼중고’는 주부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성 역할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써 생긴 결과이다. 곧 여성=사적영역(가사·자녀양육)=표현적 역할/남성=공적영역(가족 부양)=도구적 역할의 등식은, 오늘날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가로 인해 남녀가 모두 공적 영역에 편입되어 가족 부양의 책임을 공유하게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다중의 역할을 부과한 물론 남성이 사적 영역에 편입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행동양식에서 나타나는 지체

현상이라면 두번째는 의식 내지 관념상의 지체현상을 들 수 있다.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가부장적 권위'라든가 '성 역할 고정관념' '남녀차별과 남아선호사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가부장적 권위의식'은 과거에는 가족을 통솔하는 지배원리의 기능을 하였으나, 오늘날은 '부부갈등 및 불만족한 결혼생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남성자신들로부터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남녀차별과 남아선호현상 역시 사회변화에 역행하는 관념으로 '성차별을 받고 자란 딸은 결혼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남녀차별은 남자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자녀들의 성교육에 관한 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전통적인 순결교육만을 강요하는 모습에서도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오히려 저항하는) 가족지체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이 사회변화에 왜곡 적응함으로써 가족의 부적응을 가중시킨 문제들을 보면, 첫째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교육열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과잉교육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가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면서 출세나 성공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되자, 자신의 자녀들을 사회로부터 도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특별히 중산층 주부들의 경우 '남편의 출세와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행복의 척도로 삼는 타인지향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잉교육열은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즉 자녀들을 '심약하고 이기적인 아이들'로 키워냄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물론, 더불어사는 사회에 역

행하는 '가족 이기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호화혼수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이는 결혼관계가 상품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고생 보다는 편하게 살려는 젊은이들의 편리주의와 생활수준이 곧 행복의 척도로 작용하는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여기에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축적된 부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못한 탓도 있으리라 추측된다.

3) 이번에는 역방향의 지체현상 곧 가족은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사회변화가 그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지체'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가 가족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회화 기능'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그로 인한 청소년 문화의 부재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들과 맥을 같이 한다.

'부권 상실로 인한 자녀교육의 문제'도 청소년 문화 부재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 가치가 무너진 위에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문제로서 사회지체에 해당된다 하겠다. 부권상실로 인한 가족의 문제는 일면 가족 내부의 문제로 인식되기 쉬우나, 이 역시도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데서 오는 일종의 규범 공백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지체로 보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두번째 심각한 사회지체 현상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의 약화와 노후의존도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 속에서 충분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세번째 중년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가족의 변화를 사회가 미처 수용하지 못한 지체현상을 볼 수 있다. 중년여성의 문제는 대체로 ‘주부들의 문화가 없는데서 오는 불만’과 ‘주부들의 시간을 사회가 생산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는데서 오는 안타까움’ 그리고 ‘중년부부들간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년여성들의 문제도 일면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 쉬우나 많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이다.

끝으로 취업주부들의 자녀양육문제는 전형적인 사회지체의 한 예라 생각된다. 곧 이는 기혼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여성의 자녀양육 기능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함으로써 인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4) 가족과 사회가 동시에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문제현상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관계상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가족성원들간의 갈등은 가족의 역사와 더불어 상존해온 문제로 가족은 조화로움과 안정 만큼이나 갈등과 긴장이 교차하는 집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가족성원들간의 갈등 내용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리라는 것이다.

‘부부갈등’의 내용으로는 부부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이 주를 이루는 동시에, 새로운 부부관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역할분담과 의사결정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과 특별히 중년 남성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부모 자녀간의 갈등은 과잉의존과 과잉기대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더하여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역수직 현상, 나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

하는 부모자녀 세대간에 세대별 경험의 차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양식에서부터 가족가치관에 이르기까지 겪고있는 세대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관계를 노부모 자녀관계로 돌려보면, 노후부양과 노후의존을 둘러싸고 의식과 행동의 괴리, 현실과 이상의 괴리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갈등 현상 가운데 지극히 한국적이요 전형적인 현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고부간의 갈등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도 달라지고 고부간의 권력관계도 변화되어감을 감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문제는 문제의 원인과 현상이 매우 복잡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바, 다음의 <표 3>은 노인문제와 취업주부의 문제를 들어 이러한 관계를 예시한 것이다.

<표 3> 가족문제의 다차원성

노인문제	적응-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 가족지체-장남의존도 사회지체-노인복지정책의 부재 문제-노부모자녀/고부간의 갈등
취업주부	적응-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족지체-전통적 성역할 분업 고수 사회지체-자녀양육보조 시설 미비 문제-부부간의 갈등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가족문제’라 해도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문제가 발생하게된 원인이 다르다. 곧 취업주부의 문제를 예로 들어 본다면,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여성 자신의 공급 욕구가 맞아떨어져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전통적 성역할을 고수함으로써 생기는 취업주부의 역할부담문제는 가족이 사회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요, 자녀양육보조 시설의 미비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담은 거꾸로 사회가 가족의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가족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이 가족지체로 인한 것이냐 사회지체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 요망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현대사회의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가부장제적 행위양식과 규범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의 적응 및 지체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행위양식과 규범을 둘러싼 가치관의 갈등, 가족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속도의 차이로 인한 지체현상 등으로 인해 현대가족은 상당한 위기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러한 위기의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가족과 사회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오

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가부장권의 약화로 인해 가정교육이 실종되고 가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전통사회의 가부장제적 행위양식을 현대사회의 가족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려 할 경우, 이는 가족성원들에게 새로운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관계의 가치관과 행위규범을 정립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의 가족문제 해결 및 위기의 극복은 가족과 사회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적응력을 높여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성원들의 성과 연령, 가족의 생활주기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각 집단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복지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무리지만 가족의 고유한 영역을 사회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밖(사회)으로부터의 정책적 지원과 안(가족)으로부터의 적응력 및 자생력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배리 쏘온 외 (역음). 1982.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 오주 외 옮김 한울 아카데미, 1991.
 앤 쇼우스틱 사쑤 (편저). 1989. 「여성과 국가」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0. 「한국가족론」 가치.

_____ (편)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이동원. 1987. “가족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논총」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제52집 pp.259-254.
 이효재 (편). 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가치.

- 최재석. 1983.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페이스 R. 엘리엇. 1993. 「가족사회학」 안 병철 외 (옮김) 을유문화사, 1993.
- 한국여성개발원. 1990.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 한남제. 1988.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 함인회. 1993.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 개발원, pp. 119-145.
- Adams, Bert 1986. *The Family* 4th. ed. N.J.: Jovanovich.
- Blumberg, R. L. (ed.) 1991. *Gender, Family and Economy*. A Sage Focus Foundation.
- Gerstel, N. and H. Gross 1987. *Families and Work*.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Skolnick, A. and J. Skolnick (eds.) 1986. *Family in Transition*. 5th.ed. New York : Little Brown.

**‘가치소리’ 전화
(02) 735-1990**

문화 및 체육에 대해서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로 우리 문화체육이 발전합니다.